

개발과 이슈

OECD DAC 개혁안 분석

1. 서론

2. OECD DAC 개혁 추진 경위

- 1) DAC의 주요 임무와 역할
- 2) DAC 개혁 추진 배경

3. OECD DAC 개혁 합의안 분석

- 1) DAC 전문성 지속 및 확대: 정책일관성
- 2) DAC의 새로운 방향성: 비회원국과의 협업과 견제 그리고 개발자원 동원

4. 새로운 DAC에 대응하는 KOICA의 개선과제

- 1) 정책일관성 강화
- 2) 신흥공여국과의 협력 증진
- 3) 개발자원 동원 관련 사업 증대

5. 결론

OECD DAC은 2017년 10월 DAC의 새로운 임무와 비전을 수립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DAC 개혁을 마무리 지었다. 본고는 DAC 개혁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DAC 개혁을 추진하게 된 환경적 변화를 분석하였고, 포괄적이고 상호연계성이 강한 SDGs 개발목표의 등장, 신흥공여국의 규모 확대, 그리고 개발자원 중요성 증대를 주요 원인으로 추려 냈다.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DAC은 개혁안에 SDGs라는 상호연계성이 강한 개발목표들이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지 않도록 정책일관성 옹호자의 역할을 확대, 지속할 것임을 명시하였고, 신흥공여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원조 투명성 강조를 통해 신흥공여국의 부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개발자원 동원 역시 DAC의 임무이자 전략적 우선순위임을 밝히 ODA 이외의 개발자원 확보에 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새로운 DAC에 대응하기 위한 KOICA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원조 정책 내 정책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신흥공여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개발자원 동원을 위한 혁신적 사업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ODA연구원 정혜령

1. 서론

본고는 2017년 10월 30-31일 개최된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각료급 회의에서 합의된 DAC 개혁방안을 소개하고 KOICA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AC 개혁으로 새로워진 DAC의 임무와 전략적 우선순위를 소개하기에 앞서 1장에서는 DAC의 주요 임무와 역할 그리고 DAC 개혁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은 2010년 DAC에 가입한 후 현재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DAC 동료검토를 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는 한국의 원조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DAC 개혁안에 대한 이해에 앞서 DAC의 기존 역할, 임무, 그리고 운영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DAC 개혁이 한국 그리고 KOICA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17년 10월 31일에 합의된 DAC 개혁 내용을 소개하고, KOICA와 관련 있는 DAC 개혁안을 분석하겠다. DAC 개혁은 급작스러운 변화라기보다는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구해 왔던 DAC이 그간의 임무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DAC의 개혁안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져온 임무이나 이번에 확대, 지속하는 임무'와 '정책을 변화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향후 더욱 중점을 둘 임무'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3장은 2장에서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DAC 개혁이 KOICA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할 것이다. DAC의 개혁은 향후 원조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기에 이에 맞춰 KOICA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OECD DAC 개혁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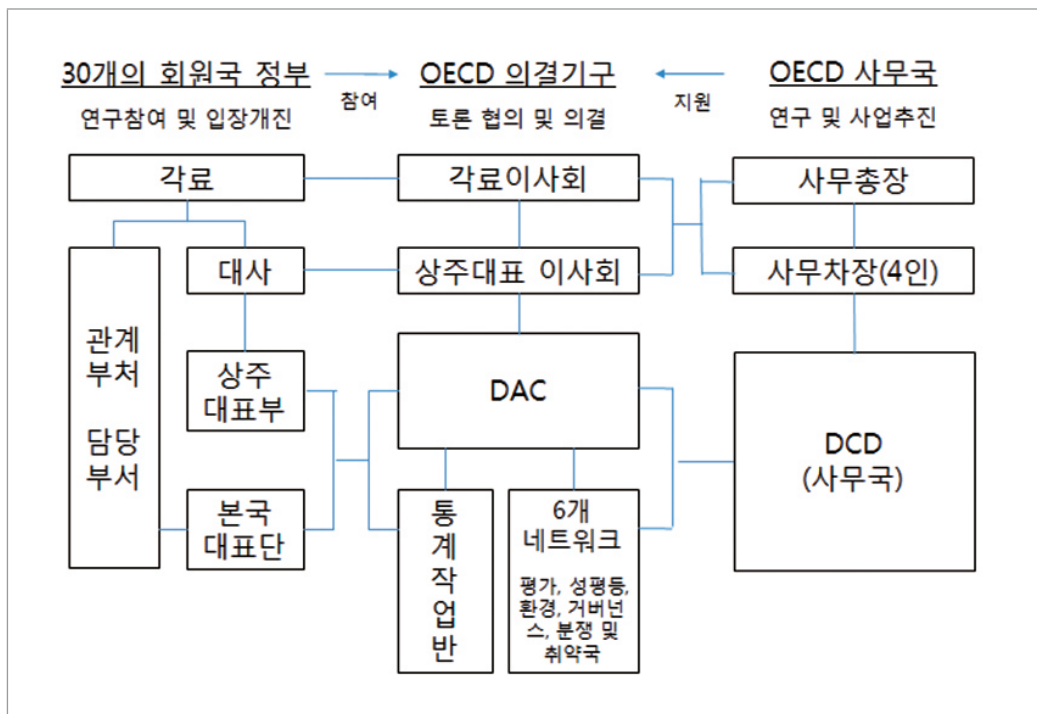
1) DAC의 주요 임무와 역할

한국이 2010년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을 시작한 OECD DAC은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30개(29개 회원국 및 EU)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DAC은 회원국 간 정책협의를 통한 공적 개발원조(ODA) 상호조정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되던 1960년 당시 유럽경제개발기구(OEEC)에서 DAG(Development Assistance Group; 개발원조그룹)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1961년 9월 OECD가 출범하면서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으로 개칭되었다.¹⁾

ODA 관련 국제 정책 대화의 장이자 국제지침 개발과 권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DAC의 운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30개의 회원국 정부들은 OECD 상주대표부 및 본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DAC 정례회의, 고위관리회의, 고위급회의에서 ODA 관련 여러 안건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고, OECD 의결기구인 각료이사회, 상주대표이사회에서 협의과정을 통해 전원합의가 이뤄지면 의사가 결정된다. OECD DCD(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는 OECD 의결기구에 대한 집행부서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연구하거나 사업을 추진한다.²⁾

[그림 1] DAC 의사결정 흐름도³⁾



출처: 외교부, 2017, 'DAC 개황', p.10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1) 외교부, 2009, OECD DAC 개황, p.2

2) ibid, p.16

3) ibid, p.16을 기초로 필자 수정

[표 1] DAC 의결기구의 구성 및 기능

회의명	주기	참석범위	주요협의사항	협의 순서
고위급 회의 (High Level Meeting; HLM)	1-2년	- DAC 회원국 각료급 인사 및 원조기관장 - DAC 비회원국 고위급 대표 - 세계은행, UNDP 등 주요개발 기구 고위급 대표	DAC 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 지침 권고 및 OECD 각료이사회 제출할 보고서 채택	↑
고위관리회의 (Senior Level Meeting, SLM)	매년	DAC 회원국 개발원조 담당 국장급 인사 참석	고위급회의(HLM) 의제 초안 검토	
DAC 정례회의	매월	DAC 회원국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 작업반, 네트워크, Task team의 업무계획, 예산심의 및 활동 평가 - SLM, HLM 준비 및 DAC 동료 검토 수행	

출처: 외교부, 2017, 'DAC 개황', pp.12-13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또한 DAC에는 작업반(working parties), 네트워크(network), Joint-ventures and task team으로 불리는 3개의 산하기관이 있으며, 이 기관들을 통해 업무가 수행된다. 작업반은 DAC의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네트워크는 원조 효과성 향상 및 전략 이행을 위한 모범사례 교환의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Joint-ventures는 특정 업무(targeted work)를 통해 DAC의 연간 및 다년도 우선순위 이행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운영체계를 갖춘 DAC은 설립목적인 ODA 정책 상호조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크게 5가지의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회원국들간의 정책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둘째, 국제원조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셋째, ODA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넷째,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해 회원국들의 개발협력정책 추진현황 및 실적을 검토하며, 다섯째, 개발협력 정책 관련 지침을 개발 및 권고한다.

[표 2] DAC 산하기관의 주요 기능과 당면 이슈

작업반 네트워크	주요 기능	당면 이슈
통계 작업반	■ 개발재원 및 원조 관련 통계 제공 ■ ODA 적격성, 보고지침 및 정의	■ ODA 현대화사업 ■ 민간재원 동원액 측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 ■ CRS 코드와 SDGs 매핑을 위한 방법론 개발
평가 네트워크	■ 개발협력 평가활동 개선 ■ 평가 방법론적 개념적 프레임워크 조화 및 표준화	■ SDGs 이행을 위한 국가 주도 평가시스템 정착 ■ SDGs 목표와 성과프레임워크 연계 강화 ■ 분쟁취약국가 및 민간섹터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 모색
성평등 네트워크	■ 성평등, 여성 인권 증진 관련 통계 관리 및 분석	■ SDGs 5 이행을 위한 개발협력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주류화 및 공조체제 구축
환경 및 개발협력 네트워크	■ 지속가능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개발협력 노력	■ 녹색 개발금융 관련 리우마커 등 DAC 통계 질적 제고 및 가시성 향상
거버넌스 네트워크	■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 촉진	■ SDGs 16 이행을 위한 효과성, 책임성, 투명성 및 포용성을 갖춘 제도 구축 지원
분쟁 및 취약지원 네트워크	■ 분쟁취약국가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정책 마련 및 이행 지원	■ 분쟁취약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전략, 자원 및 이행 도구 마련 ■ 국제사회의 분쟁취약국 지원지침인 뉴딜 및 스톡홀름 선언 이행 촉진

출처: 외교부, 2017, 'DAC 개혁', pp.14-22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DAC은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주요한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1996년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보고서를 채택하여 MDGs 선언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개발도상국들과의 원조조정 지침’, ‘원조사업 평가 원칙’, ‘빈곤 해소 지침’ 등 ODA 사업이행에 관한 정책지침을 채택하여 이행을 권고하였다.⁴⁾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및 공공자본의 흐름에 관한 통계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공여국들의 모범사례 발굴 및 교환의 장을 마련하였고, 원조 효과성 관련 국제적 선언들을 채택하였다.

4) DAC에서 채택한 정책지침 예시: ① 개발도상국들과의 원조조정 지침, ② 원조사업 평가 원칙, ③ 빈곤해소 지침, ④ 개발을 위한 무역역량 강화 지침, ⑤ 분쟁예방 지침, ⑥ 원조구매에 관한 반부패 권고 등

2) DAC 개혁 추진 배경

DAC의 개편논의가 시작된 2015년을 전후한 국제개발협력 환경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의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MDGs를 대신할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채택되었고, 비DAC 공여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중국, 인도 등의 개발협력정책 및 흐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었다. 또한 세계적 경기침체와 공여국의 원조피로현상으로 말미암아 ODA 이외의 개발 자원 확보 논의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었다. 사실 DAC은 이 같은 점진적인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일관성 논의를 발전시키고, ODA 통계 측정범위를 확장하는 등의 여러 노력을 빠르게는 90년대부터 경주해왔다. 따라서 DAC의 개편 논의를 급작스레 추진된 ‘개혁’이라고 하기보다는, 과거부터 꾸준히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응해 온 자신들의 역할을 새로운 임무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보다 공식화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장은 DAC이 기존 임무를 공식적으로 개편하도록 이끈 세 개의 국제개발협력환경 변화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임무와 새로운 임무를 비교한 <표 4>를 보면 (p.11), 크게 추가된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DAC 개혁의 국제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면 임무 혹은 전략의 변화가 가져오는 맥락적인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새로운 개발협력패러다임인 SDGs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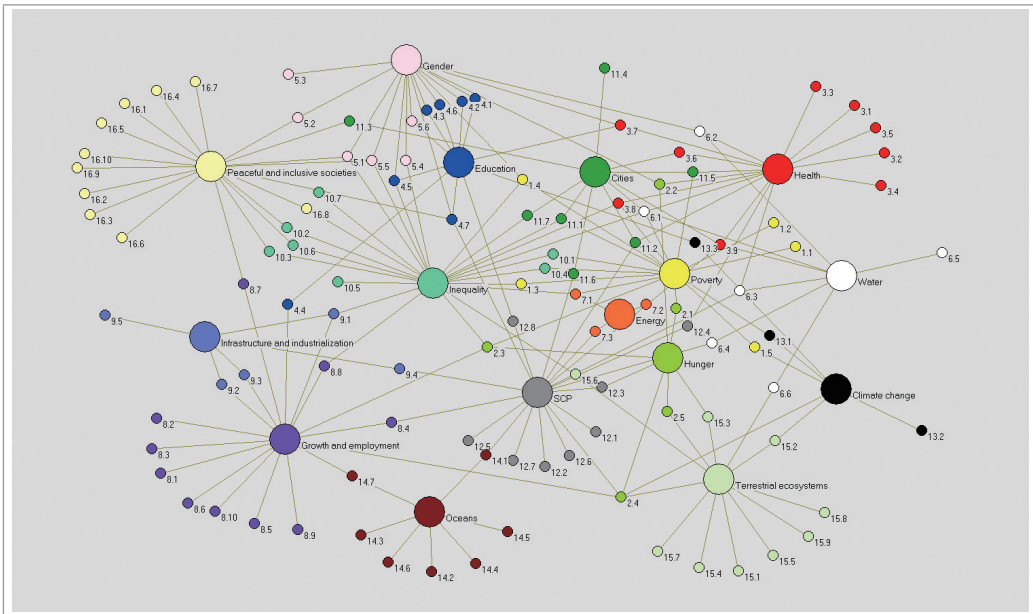
2015년까지 개발협력패러다임을 이끌었던 MDGs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해소와 사회발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었다. 하지만 SDGs는 MDGs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림 2>에서 나타나듯 이러한 주제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목표 달성의 주체가 개발도상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들로 확대된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⁵⁾

우선 SDGs 개발목표의 포괄성 및 연계성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SDGs는 MDGs의 사회발전을 넘어서 경제발전 및 환경보전이라는 개발영역을 추가하였다. 즉 개발의 3가지 측면으로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보전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goal)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를 지정하였다. 이 목표들은 빈곤, 식량, 농업, 교육, 성평등, 기후

5) "the interlinkage and integrated nature of the SDGs are of crucial importance in ensuring that the purpose of the new Agenda is realized," in UNGA,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변화, 보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거버넌스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⁶⁾ 그리고 다양한 목표들이 서로 공유되는 영역 없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계되어 있는 통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 개도국의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을 지양하게 되면 이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반면 식량 생산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개도국 내 중소기업에 기술을 전파한다면 식량 생산 증대는 물론 실업률 감소, 경제성장 등 개발효과가 여러 방면에서 시너지를 이루며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SDGs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목표 간 상쇄효과(trade-off)를 가져오는 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하여 이를 최소화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요소를 찾아내어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즉 원조정책 내 일관성을 도모하는 것이 SDGs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림 2] 네트워크로 표현된 SDGs 세부목표들 간 연계 구조



출처: Blanc 2015, p.4 (*17번 제외한 SDGs 개발목표를 SDGs의 16개의 목표(큰원 노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뤄진 네트워크 구조로 재구성하여 개발목표 및 세부목표들 간 연계성을 표현함)

6) 김은미 외, 2015, pp.47-49

SDGs 시대의 정책일관성은 원조정책 내 일관성뿐만 아니라 아니라 공여국의 원조/비원조 정책 내 일관성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만을 대상으로 했던 MDGs와는 달리 SDGs는 공여국까지 모두 포함하여 달성해야 하는 보편적인 개발목표가 되면서, 공여국은 자신들의 국내 비원조정책목표와 원조정책 목표 간의 일관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역 관련 정책은 비원조정책이지만 개도국의 발전과 연관될 수 있다. 만약 개도국에 피해를 가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결국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공여국은 이제 원조정책에 SDGs를 반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내 비원조정책 목표와 원조정책 목표 간의 조화 역시 고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요컨대 정책일관성 논의는 과거부터 있기는 하였으나, SDGs라는 보다 포괄적이며 서로 연계된 개발목표를 포함하고, 동 개발목표가 공여국과 개도국이 함께 달성해야 하는 보편적인 목표가 되면서 더욱 그 중요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② 신흥공여국의 중요성 증대

OECD는 신흥공여국(emerging provider)을 ‘DAC 비회원국이지만 지난 10년간 개발협력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입지가 중요해진 국가’로 정의한다. 대표적인 신흥공여국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아랍 국가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중국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신흥공여국은 2014년 기준으로 지원규모가 총 320억 달러에 이르러 전 세계 총 지원규모의 17%를 차지하고 있다.⁷⁾

거대 신흥공여국의 성장은 국제 개발협력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져왔다. 긍정적인 효과로 첫째, 무상원조나 양허성 차관 등 ODA만으로는 부족한 개발재원이 신흥공여국의 참여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통적 개발협력사업 보다 광범위한 정책 목표에 중점을 두어 개도국과의 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 남아공은 각각 중남미경제공동체, 아프리카지역연합을 지원하여 초국경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며,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는 지역 및 국제 평화안보 문제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신흥공여국들은 기후변화, 글로벌 금융경제 안정화,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등 개도국에만 집중하지 않는 글로벌 공공재 보전활동에도 기여하고 있다.

7) Luijckx & Benn, 2017, p.4

[표 3] 신흥공여국의 개발협력 규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
28개 DAC 회원국들의 ODA 실측치	141.2	150.1	140.1	151.7	150.8	83%
OECD DAC에 보고된 19개 신흥공여국의 ODA 실측치	6.7	9.1	6.5	16.7	25.0	14%
DAC에 보고가 되지 않은 10개 신흥공여국의 ODA 추정치	4.3	5.2	5.6	6.8	7.0	4%
29개 신흥공여국의 ODA 추정치	11.0	14.3	12.1	23.4	32.0	17%
총합	152.3	164.3	152.2	175.1	182.8	100%

출처: Lujikx & Benn, 2017, 'Emerging provider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p.4

하지만 신흥공여국의 개발협력에는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한다. 가장 큰 원인은 신흥공여국이 개발협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카타르는 구체적인 개발협력사업의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가장 최신 정보가 2013년 자료이며 중국은 개발협력사업 일부에 대한 지출 정보를 공개하였지만 언제 제공되었는지 수원국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타나있지 않다.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보가 있어야만 수원국이 개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흥공여국의 이 같은 원조양식은 장기적으로 개발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신흥공여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따르지 않는 신흥공여국 때문에, 공여국들 간 개발협력사업의 비교를 막아, 보다 의미 있는 국제협력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③ 개발재원 조성의 필요성 증가

냉전체제 이후 원조에 대한 동기가 약화되고 공여국들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ODA 이외의 개발재원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국내재원조성

8) Lujikx & Benn, 2017, p.16

및 국제민간자금 유입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몬테레이 컨센서스가 채택되었고, 2008년 도하에서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행을 위한 개발재원 후속회의가 개최되어 보다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되었다. 2015년에는 SDGs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개발재원 조성방안을 제시한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가 채택되었다.

국제사회는 앞서 3차례에 걸친 개발재원 조성 논의를 통해, 1) 수원국의 재정개혁, 공공재정 관리 투명성 강화, 부패방지 등을 활용한 국내 개발재원 동원, 2)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및 기술협력을 통한 FDI 개발효과 극대화, 3) 국제무역 증진, 4) 부채경감, 5)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한 국제금융체제 투명성 강화, 6)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 7) 개도국의 자본 도피를 규제하는 규제공조 체제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미진했던 MDGs 성과의 원인을 개발재원 부족에서 찾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원국은 기존의 0.7% ODA/GNI 공여국 공약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나,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원조피로 누적으로 공여국은 ODA의 단순한 증액보다는 개발재원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ODA의 양허성 수준에 대한 재정의 및 ODA 이외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한 공여국의 개발지원 노력을 충분하게 측정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ODA 측정체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혼합금융(Blended Finance)과 같은 민간재원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관련 방법론 개발, 정책지침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OECD DAC 개혁 합의안 분석

DAC은 2017년 10월 30-31일에 열린 각료급 회의에서 DAC의 새로운 임무 및 비전, 그리고 전략적 우선순위를 채택함으로써 DAC 개혁방안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표 4>와 <표 5>는 각각 DAC의 새로운 임무와 비전 그리고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장에서는 DAC 개혁 내용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임무를 확대 지속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임무에 포함된 개혁안 유형이다. 다시 말해, DAC이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왔던 지식, 기술 및 경험을 공식적으로 새로운 임무에 기존 임무보다 확대 포함하여, 여전히 동 임무에 대한 전문적 지위를 유지하며 더욱 확대할 것임을 명시한 임무를 뜻한다. 둘째, 새로이 추가된 임무로서의 개혁안이다. 아직은 비록 DAC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개발협력정책 기준 및 지침 형성이라는 기존의 지위를 유지

하기 위해, 변화하는 국제환경에서 새로이 개척할 임무임을 의미한다.

[표 4] DAC의 기존임무와 새로운 임무와의 비교*

기존 임무	새로운 임무
(목적) - ODA, 공적 및 민간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재원의 모니터, 평가, 보고, 증진*** - 개발정책 및 관행 평가, 상호 학습 증진 - 회원국에 분석, 지침, 모범사례를 제공하고, 공여국 공동체의 개발협력 품질 및 효과성 증진 지원*** - 급격히 진화하는 세계개발환경에서 긍정적 개발 효과를 내도록 지원 - 세계공공재로서 OECD 타기관과의 조화 정책 일관성을 유지 - 주요개발협력 수행자인 비회원국, 국제기구, 민간 기관 및 시민사회대표와의 협업	(목적) - ODA, 공적 및 민간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재원의 모니터, 평가, 보고, 증진*** - 개발정책 및 관행 평가, <u>국제규범 준수 및 ODA의 온전성(integrity) 보호, 투명성**</u> 및 상호 학습 증진 - 회원국에 분석, 지침, 모범사례를 제공하고, 공여국 공동체의 개발협력 품질 및 효과성 증진 지원*** <u>SDGs 달성을 위한 2030 아젠다 이행과 AAAA에 따른 자원 동원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 개발 효과가 극대화 하기 위해 세계 개발 지형의 변화 분석**</u> <u>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공공재, 정책일관성의 개념 제고*</u>
(협력) - OECD 여타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개념 제고 및 개발을 위한 정책 정합성 제고 - 비회원국(특히 국제기구, 민간기구,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	(협력) <u>범분야 이슈 및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관련된 OECD 여타 기구와의 긴밀한 협업*</u> <u>DAC과 산하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OECD 비회원국과의 협업**</u> - 비회원국, 수원국과 국제기구, 민간분야 기구, 재단, 시민사회와의 협업
(특별 위임 권한) 개발과 관련한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특별 위임 권한) 개발과 관련한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출처: 외교부, 2017, OECD DAC 개황, p.43 참조 저자 재구성

* 기존 임무와 비교했을 때, 지속 확대된 임무는 기울임 표시

** 추가된 임무는 밑줄 표시

*** 통계 분야 및 개발효과성과 같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임무에는 별도 표시를 하지 않음.

[표 5] DAC 새로운 비전과 전략적 우선순위

DAC 비전

- 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와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달성을 위한 **정책일관성** 수호자로서 비전
- **개발협력 성과를 강화하고 개발재원을 동원**하기 위해 모니터링, 성과측정, 모범사례 공유 및 정책을 세우는 정책협회의 장이 되는 것을 목적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원칙 적용을 통해 모범을 통한 선도

(영문)

The DAC vision is to champio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Addis Ababa Action Agenda an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mong provide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within the OECD. The DAC aims to be the preferred platform for all providers to monitor, measure, share lessons, and set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results and impact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timulate mobilization of resources** for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The DAC will lead by example, applying the principles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DAC 전략적 우선순위

- 1) 개발 영향력 확대 및 자원 동원에 중점
- 2) 기존 개발 접근 방식으로부터의 학습
- 3) DAC의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
- 4) **DAC 회원국 외 개발주체들에 대한 아웃리치** 실시
- 5) DAC의 **투명성** 및 자기평가 강화
- 6) DAC의 시스템, 거버넌스, 구조 효율화

(영문)

- 1) The DAC will focus on **fostering development impact and mobilizing resources**.
- 2) The DAC will learn from existing development approaches.
- 3) The DAC will explore new development approaches.
- 4) The DAC will **reach out to development actors beyond its Membership** to influence and be influenced.
- 5) The DAC will increase **transparency**, proactively self-assess and hold itself to account.
- 6) The DAC will work in effective governance, system and structure.

출처: OECD, 2017, "Chair's Proposal for a Vision and Strategic Priorities for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참고: 지속 확대된 임무는 기울임 표시 및 추가된 임무는 밑줄 표시

1) DAC 전문성 지속 및 확대: 정책일관성

DAC의 새로운 임무 중 기존 임무와 지속성을 가지며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에 대한 부분이다.

먼저 ‘정책일관성’은 새로운 임무(A new DAC mandate)에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으며, 향후 5년 동안의 DAC의 비전에서도 첫 번째 문장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기존에도 포함되어 있던 임무였지만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OECD는 전통적으로 정책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1990년대부터 DAC은 회원국들이 공여국 내 비원조/원조정책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범 정부적 접근법을 제안하거나, 공여국 간 정책일관성을 추진하여 원조거래비용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2003년 로마선언을 계기로 원조효과성이 강조되면서부터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려하기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의 정책일관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⁹⁾ DAC은 이러한 정책일관성의 논의를 DAC 내 제도로 흡수시켜 2002년 DAC 동료검토에 정책일관성 논의를 포함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정책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유관부서를 설립한 바 있다.¹⁰⁾

SDGs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책일관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SDGs 개발목표가 지닌 포괄성, 통합성 그리고 보편성 때문이다. 앞서 DAC 개혁 추진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DGs는 개발도상국만을 대상으로 주로 사회발전에 초점을 맞춘 상대적으로 단순한 개발계획이었다면, SDGs는 사회발전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기후환경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개발목표를 다루게 되었으며, 개발목표들 간의 상호연계성이 강화되었다. 더 나아가 개도국만을 대상으로 했던 MDGs와는 달리 SDGs는 선진국도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되면서, 공여국은 비원조정책과 원조정책 모두가 SDGs에 맞춰지게 되었다. 이로써, 원조정책 내 일관성은 물론 공여국의 비원조/원조정책 일관성도 더욱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DAC은 정책일관성이 중요해지는 SDGs 시대에 자신들이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아왔던 정책일관성을 새로운 임무와 비전에 더욱 그 중요성을 확대하여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DAC의 새로운 방향성: 신흥공여국과의 협업과 견제 그리고 개발재원 동원

DAC의 새로운 임무에 추가된 임무, 비전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1) ‘국제규범 준수, ODA 온전성 보호, 투명성 증진’에 대한 강조, 2) DAC 산하기관과 비회원국들과의 협업, 3) 개발재

9) 손혁상, 2012, p.2

10) 김은미 외, 2015, pp.47-52

원 동원이 있다. 특히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는 ‘전략적 행동사항(Strategic Action Points)’에도 DAC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의 개발협력 총액의 흐름을 파악할 것임을 명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록> 참조).

새로이 추가된 세 가지 임무들 중 앞의 두 개의 임무는 현 신흥공여국의 대두를 개발효과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원조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만드는 DAC의 지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반증한다. 먼저 DAC이 신흥공여국의 등장을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기회로 보고 있는 이유는, 신흥공여국 덕분에 개발재원이 확보되고 있으며, 이들의 개발협력사업이 상업적 수단 활용 및 평화유지 활동 등 전통적 개발협력사업과는 다른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DAC 임무에서, 기존에 유지해 왔던 추상적인 협업에 대한 언급에서 더 나아가 DAC의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하기관(통계 작업반 및 6개 네트워크)과의 협업 강조를 통해 이제 신흥공여국과의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DAC은 신흥공여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신흥공여국이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자의적인 규정 수립으로 DAC의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국제적 기준 개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흥공여국이 자국 개발협력사업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DAC의 개발재원 흐름 관련 데이터 수집과 점검의 정확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DAC은 새로운 임무에 DAC 비회원국과의 실질적 협업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정보의 투명성 및 ODA의 온전성을 강조함을 통해 DAC 비회원국의 영향력도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신흥공여국의 개발협력사업을 DAC의 통제하에 두려는 노력은 규범적인 투명성 강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ODA 정의의 확장과 같은 제도적인 조치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ODA 정의의 현대화는 다양한 개발재원 등장과의 연관 있지만 신흥공여국과 관련한 자금에 대한 정보수집과도 연관된다.

DAC은 최근 ODA 현대화 작업을 통해 평화와 안보에 대한 ODA 인정범위 재검토, 민간금융 수단을 통한 개발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원칙 개발, ODA를 포함한 모든 개발재원의 흐름을 측정 권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개발재원의 다양화와 관련되어 설명되어 왔다. 하지만 신흥공여국의 개발재원이 주로 상업적 수단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 그리고 평화안보에 막대한 자금을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ODA 현대화는 DAC에게 신흥공여국의 개발재원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도 해석가능하다.

신흥공여국과의 협력과 견제와 더불어, ‘개발재원 동원’ 역시 DAC에서 새롭게 자신의 임무이자 전략적 우선순위로 택한 사항이다. 개발재원 동원의 경우, 정책일관성과는 달리, DAC이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아 온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무, 비전 그리고 전략적 우선순위에 모두 개발재원 동원을 DAC의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 명시한 것으로 미루어, 향후 DAC이 이 영역에서 활발한 연구, 정책 논의의 장, 그리고 지침 개발 및 권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DAC은 ODA 이외의 개발재원 동원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 앞서 설명한 ODA 정의 현대화와 TOSSD(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도입을 통한 통계 측정 범위 확장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재원 동원을 위한 혼합금융이라는 새로운 원조사업 형태로도 관여하고 있다. DAC은 혼합금융을 개도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상업적 목적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개발재원의 전략적 활용이라 정의하고, 혼합금융이 새로운 방식의 원조사업을 위한 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DAC은 주요 공여국 정부, 개발원조기관, 연기금 및 금융기관을 비롯한 민간 투자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고위급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논의 중이며 2018년 혼합금융 관련 정책제언 및 증거기반 사례도 제공할 예정이다.

4. 새로운 DAC에 대응하는 KOICA의 개선과제

DAC의 개혁방안을 분석해 본 결과, 향후 DAC이 추진할 방향성이 세 가지로 추려졌다. 첫째는 SDGs 시대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해 개발성과를 강조하고 정책일관성 제고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신흥공여국과의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발재원 흐름 투명성 강화를 통한 견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셋째, 개발재원 동원을 위한 지침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DAC이 개발협력정책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지침을 개발하고 권고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개혁방안은 DAC을 넘어 KOICA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해 준다. 이 장에는 DAC의 세 가지 주요 개혁방안에 비춰 KOICA의 현 상황과 이제까지의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책일관성 강화

한국이 2010년 DAC에 가입한 이래, 총 2회(2012년, 2017년)의 OECD 동료검토가 있었다. 2012년 제1회 동료검토 권고사항 28가지 중 3가지가 정책일관성에 관한 것이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감독하에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의제수립’,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및 조율을 위한 충분한 기술적 정치적 역량 확보’, ‘대내외 정책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 강화’가 그것들이다.¹¹⁾

하지만 2015년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제1차 동료검토 권고사항 28개 가운데 가장 발전이 더딘 분야가 정책일관성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¹²⁾ 2015년 10월에 확정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도 한국의 정책일관성 추진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KOICA 내부적으로도 원조정책 내 일관성 강화를 위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 2017년에 진행된 제2차 동료검토에서도 지적되었듯,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여전히 범정부적으로 정책 및 전략을 지도, 이행점검, 총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며 전략적 조직으로 진화하지 못한 상황이기¹³⁾에 정책일관성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및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 더구나 KOICA는 정책수립 보다는 정책집행기관이기에 정책일관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Gs 시대 이후 정책일관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조정책 내 정책일관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OECD DAC은 SDGs 목표 및 세부목표별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물론, 시너지 창출 영역, 상쇄효과가 나타나는 관계를 규명하여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정책일관성이 어떻게 추구되어야 하는지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자체적 정책일관성 추진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지표도 제공하고 있다.¹⁴⁾ 다행히 KOICA도 SDGs와 연계된 중장기 분야별 전략(2016-2020)을 수립하여 수원국의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개발협력사업의 방향을 정한 바 있다. 따라서 OECD DAC의 연구결과를 학습하고 분석하여 정책일관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KOICA의 SDGs 연계 전략기획에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1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 ‘2012년 개발협력정책 집행평가 권고사항 활용계획’; 김은미 외, 2015, pp.132-133

12) KOICA, 2015, p.143

13) OECD DAC, 2017, OECD DAC PEER REVIEW OF KOREA Key Impressions, p.1

14) OECD, 2017,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7: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참고

2) 신흥공여국과의 협력 도모

DAC이 DAC 비회원국이나 개발협력사업의 규모가 큰 신흥공여국들인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명시한 만큼 한국도 DAC 비회원국들과의 공조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KOICA는 타 공여국과 협력을 통해 여러 사업을 추진해왔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는 주로 연수사업을 중심으로 타 공여국과의 협력이 이뤄졌다. 하지만 2010년부터 타 공여국과의 협력사업이 다양해지면서 연수사업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포럼 세미나, 그리고 2016년에는 봉사단 파견 사업까지 확대되었다. 이 같은 사업은 주로 타 공여국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업집행 및 공동학습의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협력해 온 타 공여국은 주로 미국(USAID), 호주(DFAT), 독일(GIZ/KfW), 노르웨이 등 선진 서구 공여국에 한정되었다. 싱가포르와 태국과도 공동협력을 한 적 있으나 연수사업에만 치우쳐져 있는 형편이다.¹⁵⁾

따라서 신흥공여국의 대두로 인한 실질적 협력요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KOICA는 협력대상 공여국을 선진 공여국에서 주요 신흥공여국(브라질, 중국, 인도, 쿠웨이트, 멕시코,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UAE)으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신흥공여국이 가진 상업적 수단을 활용한 개발협력, 지역기구를 통한 접근과 같은 전문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신흥공여국들의 언어적, 문화적 비교우위 및 지역 내 리더의 위치를 활용한다면, 파급력이 큰 개발협력사업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3) 개발자원 조성을 위한 혁신적 사업 발굴

DAC이 민간재원을 동원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추구하는 것에 발맞춰 한국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개발재원을 활용하여 국내 재정의 한계를 보완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정책일관성과 신흥공여국과의 협력 영역과는 달리 민간재원을 활용한 혁신적 개발협력사업은 KOICA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15) KOICA 내부자료

KOICA는 2016년부터 민관협력사업(시민사회 및 대학 대상)을 통해 정부간 ODA에서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풀뿌리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개발행동프로그램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 D.I.P.디아이피)을 추진하여 민간기업의 신기술과 지식을 개발협력사업에 적용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창의적 가치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학기술 기반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증대시켰다.¹⁶⁾ 이와 같이 KOICA는 기관의 개발협력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 동원의 지렛대 역할 수행을 통해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민간재원을 활용한 개발협력사업 추진 요구와 함께 국내적으로도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취·창업 기회 확대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에 KOICA의 민간재원 유입을 활용한 혁신적 사업 모델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이제까지 DAC의 개혁이 이뤄지게 된 주요 원인인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의 세 측면—SDGs 시대의 도래, 신흥공여국의 대두, 개발재원의 필요성 강화—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여 수립된 DAC의 개혁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DAC 개혁이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을 알려주는 점에 착안하여, KOICA의 사업개발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AC은 SDGs라는 포괄적이고, 상호연계성이 강한 개발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정책일관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 강화할 것이며, 신흥공여국과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및 통제를 위한 제도적 기제 마련을 꾸준히 추구할 것이다. 또한 개발재원 동원을 위한 지침 개발에 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DAC의 새로운 추진방향에 대응하여 KOICA도 원조정책 내 정책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신흥공여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KOICA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민간재원을 동원한 혁신적 사업 발굴 및 수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개발효과성 제고’가 DAC의 새로운 임무, 비전 그리고 우선순위 1번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과거와 변함없이 추구되는 임무이고 이제까지 많은 논의가 이뤄졌기에 구체적인

16) KOICA, 2017, KOICA 연보, p.86

로 다루지 않았다. DAC은 2003년 로마선언을 시작으로, 2005년 파리, 2008년 아크라 그리고 2011년 부산세계개발총회에 이르기까지 개발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과중심 관리, 수원국 주인의식 제고 등 개발효과성 원칙을 권고하여 왔다. 또한 SDGs 시대에 맞춰 SDGs 연계 성과프레임워크 방법을 개발하는 등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KOICA도 SDGs의 체계적인 이행과 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한 적극적인 성과관리 제도 구축 역시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내 문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 『2012년 개발협력정책 집행평가 권고사항 활용계획』, 제1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15-1~3호).

김은미, 조희정, 박민정, 송지선, 2015, 『OECD DAC 개발협력 주요 이슈 논의동향과 한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연계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손혁상, 2012, 한국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제고 방안,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7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외교통상부, 2009, 『OECD DAC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17, 『OECD DAC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출판예정).

한국국제협력단, 2017, 『2016년 KOICA 연보』,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017, “타 공여기관 협력 현황 요약”, 내부자료

▶ 국외 문헌

Blanc, David Le, 2015, “Toward integration at las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a network of targets.” United Nation 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Affairs Working Paper No. 114.

Luijkx, Willem & Julia Benn, 2017, “Emerging provider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 33, OECD.

OECD, 2017,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7: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OECD Publishing, Paris

_____, 2017, “Chair’s Proposal for a Vision and Strategic Priorities for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_____, 2017, “THE MANDATE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_____, 2017, ‘OECD DAC PEER REVIEW OF KOREA: Key Impressions’, 2017년 6월 23일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1252030%20Agenda%20for%20Sustainable%20Development%20web.pdf>)

〈부록〉 전략적 행동사항 (Strategic Action Points)*

*6개 전략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사항

SP1-개발영향 제고와 재원동원 Focus on fostering development impact and mobilizing resources			
		설명/해석	예산 영향
1.1	SDGs를 대변하는 DAC 위원회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도록 권한을 개정함: 아디스아바바 행동 계획에 따라 자원을 동원하고, SDGs 실행을 가능하게 하며, 재원 흐름과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함. 지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모든 국가가 개발 결과와 개발 효과성 및 영향에 집중하도록 강화함	현재 권한은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됨. 9월 회의에서 논의하고 10월 각료급회의에서 승인할 예정	없음
1.2	SDGs 달성을 위해 영향과 자원을 높이는 기회를 찾고자 DA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함	DAC 의장이 기존의 구조와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어 DCD 국제 원조팀과 OECD 팀들과 협력할 예정	즉각적이지 않으나 다음 PWB(사업 계획 및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3	개발협력의 영향, 질, 효과성을 높이는 DAC의 정책 분석과 지침, 좋은 관행을 강화함	DAC 부속기구 및 회원국과 대화를 통해 진전해야 함. 2019~2020년 PWB에 실행하기 위해 2018년 3월 이전에 부속기구의 권한을 개정하고, 이후 DAC의 권한을 개정함	있음. 2019/2020년 PWB를 수립해야 함
1.4	국제 공적 개발 흐름의 총액을 파악하는 노력에 투자함(ODA를 넘어서 DAC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포함함)	TOSSD를 통해 진행하고 있음. DAC 의장은 UN에서 이에 관한 국제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G77과 대화할 예정	없음. 2017/2018년 PWB의 일부임

SP2-기존 개발 접근으로부터의 학습 Learn from existing development approaches			
		설명/해석	예산 영향
2.1	DAC 동료검토가 혁신을 촉진하고 국제적 약속을 감시하며, 원조와 개발 효과성의 좋은 관행과 원칙을 장려하고, DAC 회원국이 DAC 규범과 2030 아젠다 실행을 지지하는 노력을 증대하고 영향을 강화하도록 조정함	2019~2020년 PWB에 실행하기 위해 2018년 1분기에 DAC 회원국과 동료검토 팀이 대화를 통해 발전시킬 예정	없음
2.2	개발협력이사회가 조정하는 동료검토 과정에 검토자가 아닌 이해당사자로서 파트너(시민사회단체, 수원국,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공식적이고 구조화된 참여를 확대함	2019~2020년 PWB에 실행하기 위해 2018년 1분기에 DAC 회원국과 동료검토 팀이 대화를 통해 발전시킬 예정	즉각적이지 않으나 다음 PWB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3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동료검토의 주요 내용에 근거하여 주제 검토와 연간 토의 가능성을 모색함	DAC 회원국과 동료검토 팀이 대화를 통해 진전해야 함	있음, 2019/2020년 PWB를 수립해야 함
2.4	관련된 모니터링, 연구, 동료 검토 연습 내용을 학습하고 교환하는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함	DAC 회원국과 동료검토 팀이 대화를 통해 진전해야 함	있음, 2019/2020년 PWB를 수립해야 함

SP3-DAC의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 Disseminate best practices and explore new development approaches			
		설명/해석	예산 영향
3.1	2030 아젠다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개발 접근과 혁신적 개발 자원을 위한 자금 증가를 논의하기 위해 DAC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개발 행위자들을 소집하는 DAC의 역할을 반영하여 권한을 개정함	진행하고 있으며, 9월 회의와 10월 각료급회의에서 DAC 위원회와 새로운 권한에 대해 논의할 계획	없음
3.2	새로운 개발협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견하고 중개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음 PWB 기획 가능성을 모색함	DAC 회원국과 OECD 팀들과 대화를 통해 진전해야 함	있음, 2019/2020년 PWB를 수립해야 함
3.3	다른 개발 맥락에서의 다른 접근에 관한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DAC을 확립하여 “모범 사례”에서 “가장 적합한 사례”에 관한 논의와 결정으로 초점을 옮김	OECD 팀들과 협력하며 DAC에 새로운 관점과 논의를 제시할 회의를 조직하고 있음 DAC 부속기구, OECD 팀 및 개발 이해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계속해서 진전시킬 예정	있음, 2019/2020년 PWB를 수립해야 함

SP4-DAC 회원국 외 개발주체들에 대한 아웃리치 실시 Reach out to development actors beyond its Membership to influence and be influenced			
		설명/해석	예산 영향
4.1	DAC 위원회가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며 국제관계 전략을 발전시킴	DAC 의장이 DCD 국제 원조팀 및 관련된 OECD 팀들과 협력할 예정. 다음 PWB에 포함하기 위해 2018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	즉각적이지 않으나 다음 PWB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2	6.9와 통합		
4.3	상호 보완과 협력의 방식으로 효과적 개발 협력에 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함	지속적으로 GPEDC에 참여하며 G20, UN을 통해 국제 논의에 참여하여 OECD 팀들과 협력을 증대함. 시너지 효과를 위해 개발 이해당사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함	없음
4.4	소셜 미디어에 집중하며 가시성과 능동적 의사소통을 강화함	개발 클러스터와 DCD 간의 협력과 소통, 원조를 증대하기 위해 DAC 의장 집무실에 커뮤니케이션 담당 직원을 채용하여 효과를 거둠	즉각적이지 않으나 다음 PWB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5	개발협력보고서, 개발 재원에 관한 국제 전망, 동료검토와 같은 대표적인 결과물에 대해 전략적으로 소통함	기존 PWB 결과물에 기반을 두어 소셜 미디어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고 전통적 활동을 새로운 활동으로 대체하여 대화를 증대함.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개발하고 조직하기 위해 담당 팀과 협력함: 메시지 전달, 주요 행사 및 소셜 미디어에 참여	즉각적이지 않으나 다음 PWB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SP5-DAC의 투명성 및 자기평가 강화 Proactively self-assess and hold itself to account			
		설명/해석	예산 영향
5.1	ODA의 양과 질과 다른 개발 자원 흐름의 개관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방법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수단을 개발함	다른 공식 통계로부터 개발되는 공동의 수단을 위해 잠재적 파트너들과 대화함. UNDP(GPEDC), ODI, CGD, WB, IATI는 가능한 파트너임	즉각적이지 않으나 다음 PWB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5.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와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DAC 규범과 기준을 조사하는 평가를 실시함	평가팀은 DAC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DCD로 구성될 것이고, PWB 과정의 일부로 논의하기 위해 2030 아젠다에 따른 기준과 규범을 세우도록 권고할 예정	있음. 2019/2020년 PWB를 수립해야 함

SP6-DAC의 시스템, 거버넌스, 구조 효율화 Work in effective governance, systems and structures			
		설명/해석	예산 영향
6.1	DAC 회원국이 공동 의장이 되는 각료급회의를 조직함	2018년 각료급 회의에 모색할 예정	없음
6.2	DAC 회의 참석자들의 연공서열과 전문 지식의 수준이 논의될 주제와 적절하도록 보장함	의사결정자, 상주 대표자, 전문가 간의 올바른 균형을 찾기 위해 DAC 회원국과 대화를 통해 진전시킴 회의는 DCD가 조정하는 DAC 부속기구 및 OECD 팀 등 다른 회의와 함께 클러스터 안에서 예정돼야 함	없음
6.3	DAC 부속기구 및 네트워크의 구조와 범위에 대해 검토하여 DAC의 권한과 우선순위를 전달하도록 보장함	6월 회의에서 진행함. 새로운 DAC 권한이 확립되는 2018년에 권한을 조정하고 정기적인 대화를 계획함	없음
6.4	책임을 높이고 DAC 정책 논의를 알리는 주제별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DAC와 DAC의 네트워크 및 부속기구 간에 연결을 강화함	6월 회의에서 진행함. 2018년에 권한을 조정하고 정기적인 대화를 계획함 DAC 부속기구의 활동을 강조하는 작업반이 DAC에 설립될 예정	있음. 2019/2020년 PWB를 수립해야 함
6.5	회원국(보통 출신 국가)이 지불한 DAC 의장의 급여와 자발적 기여로 지원된 DAC 의장 직무실 비용(직원 및 출장 포함)에 대해 새로운 방법 구축함. 이 방법은 DAC 회원국이 자국민을 의장으로 제안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절감함	2019/2020년 PWB의 일부로 논의됨-DAC 의장 직무실을 위해 제안된 벤처 자금이 PWB에 포함돼야 할 경우	있음. 2019/2020년 PWB를 수립해야 함
6.6	(합의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업무 방식을 개선함	혁신적인 작업 흐름과 회의 빈도를 찾기 위해 대표자들과 논의하고 있음 즉, 합의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와 DAC 내에 특정 주제를 담당하는 작업반이 어떻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다른 유형의 회의(공식 회의, 비공식 회의, 작업반, 임시 태스크 포스) 간의 균형을 검토함	없음

6.7	DAC 문서가 완결되어 승인되기까지 “공식 사용” 또는 “기밀”을 고려하고, 이후 “기밀이 아닌” 것으로 빠르게 제작하여 DAC 문서 접근을 증대함	진행하고 있음. IDE에 대한 반응. DCD가 새로운 방법을 제안함	없음
6.8	6.6과 통합		없음
6.9	DAC의 활동을 구조화하고 예측가능하게 하며, 주요 이해당사자 집단을 포함하고, 관련된 포럼 (GPEDC)에서 수행되는 업무에 기반을 둔 연간 업무 계획을 활용함	DAC의 활동을 PWB와 관계된 핵심과정에 집중시킬 예정 DAC 의장은 매년 마지막 DAC 회의에서 연간 업무 계획을 논의하고, 다음 해 첫 회의에서 승인함	없음
6.10	6.9와 통합		
6.11	정기적으로 DAC 개혁에서 동의한 모든 사항을 후속 조치함	DAC 회의의 아젠다로 후속조치에 관한 활동을 둠. DCD가 후속 조치 과정을 제안함	없음
6.12	OECD 사무국과 DCD와 적극적이고 잘 관리되는 관계를 촉진함	DCD와 주기적 회의 및 지속적 협조	없음

MEMO

MEMO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 하에 인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ODA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